영광군이 백수읍 하사리와 염산면 두우리 일대 66만1157㎡ 부지에 '영광 에너지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영광 에너지융복합산단 경관조명 조감도.

영광 백수·염산에 'e-산업 전초기지'

군, 20만평 규모 에너지융복합산업 플랫폼 조성…그린뉴딜 가시화
에너지 홍보·체험학습장·야간경관 조명…e-모빌리티 트레일 구축

영광군이 대규모 에너지융복합산업 플랫폼 구축을 통해 '그린뉴딜'을 가시화한다.

영광군은 백수읍 하사리와 염산면 두우리 일대 66만1157㎡(20여만평) 부지에 에너지산업 전초기지를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영광군은 전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에너지융복합산업 플랫폼 구축 기본계획 수립·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보고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에너지산업 전초기지는 에너지 인프라를 테마로 관광객과 방문객들을 위한 에너지 홍보·체험학습장, 야간경관 조명, e-모빌리티(전기동력 운송수단) 복합 트레일을 구축하고 에너지 연구 관련 시설 등을 적극 유치하는 사업이다.

이번 용역은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그린뉴딜정책의 초석을 다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용역을 통해 추진 방향이 결정되면 에너지 시설이 집약돼 있는 백수읍 하사리와 염산면 두우리 국·공유지 66만1157㎡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에너지 전초기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용역에는 사업 최적지 발굴, 도입시설 배치, 공간구성 계획, 체험콘텐츠 발굴 등이 담길 예정이다.

영광군은 단일면적 대비 국내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단지(76기·173.9MW)와 태양광 발전단지(148MW)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그린뉴딜의 핵심 분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홍석봉 영광부군수는 "영광이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에너지융복합산업 플랫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이동주 시인 탄생 100주년…해남군, 제1회 전국 시낭송 경연대회

10월 1~20일 음원파일 공모
31일 땅끝순례문학관서 본선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은 제1회 해남시인 전국시(詩)낭송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땅끝순례문학관의 '전국 MP3 시낭송 공모전'을 확대해 해남 출신의 문인과 작품을 널리 알리고 시낭송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주제는 해남 출신 대표 현대시인으로서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이동주 시인이다.

심호 이동주(1920~1979) 시인은 전통적인 심미주의에 입각해 한국어의 우아하고도 영롱한 예술성을 개척한 시인이다.

해남의 민속을 소재로 한 강강술래를 비롯해 향토적이고, 민족적 서정이 잘 드러난 독보적인 시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예선은 이동주 시인의 시 1편과 자유시 1편을 골라 음원파일로 녹음한 뒤 원문시와 신청서를 첨부해 전자우편(ej0719@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작품 분량은 한 작품당 3분 이내다.

응모기간은 10월 1일부터 20일까지이며 예선을 거쳐 같은 달 31일 땅끝순례문학관에서 본선 경연대회를 연다.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로 나누어 16명의 우수작을 선정하며 최고 상금은 100만원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할 경우 비대면 낭송 영상 제출·심사로 변경해 진행할 방침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무안군, 정부 공모사업 14개 선정…82억 확보

가족센터·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지역경제 변화·활력 기대

무안군은 올해 상반기 정부 공모에서 14개 사업이 선정돼 총사업비 82억6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열악한 군비 재원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농촌지역에 새로운 변화와 활력이 기대된다.

선정된 사업은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이 주관한 무안복합문화센터 내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및 가족센터'(국비 15억원), 한국에너지공단의 '2021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국비 18억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등이다.

무안군은 하반기에도 어촌뉴딜 사업, 자연친화형 수산종자 생산기지 구축사업 등 11개 공모 사업 선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모사업 선정이 중요하다"며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지역 논리를 개발해 공모사업을 최대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완도 해양기후치유센터 '첫 삽'…12월 준공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에…다목적홀·탈의실 등 설치

완도군이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에 건립하는 해양기후치유센터 사업의 첫 삽을 떴다.〈조감도〉

완도군은 최근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사업의 하나인 해양기후치유센터 건립 사업을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착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센터는 총사업비 12억원을 들여 청정 환경과 기후를 활용하는 노르딕워킹·해변 요가 등 다양한 해양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홀, 라커룸, 탈의실 등을 갖춘다.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은 이용객 만족도가 높아 완도군의 대표적 체험행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해양치유단지 조성을 위해 처음 착공하는 시설로 완도군의 역점 추진 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을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우철 군수는 "해양기후치유센터 착공은 해양치유산업의 첫발을 내딛는 사업으로 의미가 크다"며 "해양치유단지를 차질없이 추진해 해양치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군 규제입증책임제 효과 '톡톡'…24건 개선

완도군이 올해 초 도입한 '규제입증책임제'가 성과를 내고 있다.

완도군은 규제입증책임제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자치법규를 정비했다고 22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총 208건의 규제를 심의해 24건을 개선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임차 신청 대상이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이나 토지가 있는 농업인'으로 한정돼 있었던 것을 주소지와 상관없이 완도군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농기계 임대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규제도 손질한다.

상위법인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춰 옥외 광고 사업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하고 장부를 비치토록 했던 조례를 개정한다.

장사시설 이용 시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달리 허가를 받도록 했던 조례 등을 개정,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군민·기업 등 누구나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제입증 요청 창구'를 군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